

세대 교체와 노령 사회

김 강 석 / SBS 편집부 차장

‘사 오정’이란 말이 다시 유행이다. 과거 이 말은 동문서답을 하거나 멍청한 사람을 일컫는 용어로 쓰여져 왔다. 하지만 최근의 ‘사오정’은 더욱 썰렁하다. 45세에 정년퇴직한다는 말이다. 인생에서 가장 왕성하게 일할 나이인 45세에 직장에서 타의로 나와야 된다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그만큼 우리사회엔 고용난과 함께 세대교체의 바람이 거세다는 얘기가.

서울시장 후보로 민주당에서는 30대의 김민석 의원이 뽑힌 것이나 노무현 후보가 이른바 ‘노풍’을 일으킨 것도 3김으로 대표되는 노인 정치시대를 청산하자는 세대교체 바람에 다름 아닐 것이다. 문제는 이런 세대교체 움직임이 우리 사회의 인구변화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8%에 이르고 있다. 그 비율이 7%가 넘어 서면 노령화 사회라고 한다. 일본과 같이 노인의 비율이 14%가 넘는 사회는 바로 노령 사회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20년안에 노령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직장 생활의 연령은 짧아지는 반면 국민들의 수명은 늘어나 유휴 노인층이 갈수록 우리 사회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본을 비롯한 선진 노령 사회에서는 정책적으로 노인의 고용을 장려하는 등 일찌감치 유인책을 내놓으며 노인을 부양해야 할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려고 애쓰고 있다. 얼마전 EU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정년퇴직 제도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

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평생 고용 체제가 이뤄지지 않고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노령화 사회의 심각성을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에서는 오직 생산성 향상과 더 많은 이익만 생각할 뿐 직장인의 조기 퇴직이 고령화 사회와 상승작용을 일으켜 기업에 더 큰 비용을 물게 할 가능성에 대해선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노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니어 클럽 같은 단체를 지역별로 지정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도록 유도하고 있다. 선진국 처럼 연공서열을 폐지하고 연봉제로 가려면 평생 고용이 보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즉 기업들이 생산성은 떨어지면서 호봉은 자꾸 올라 비용부담이 많아지는 고령자를 조기퇴직 등으로 내몰기 보다는 연봉을 줄인 뒤 꼭 필요한 일자리에 배치함으로써 기업과 나이 많은 직장인이 상생하는 이른바 윈윈(win-win) 전략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부에나 비스타 소시얼 클럽〉이라는 영화에서 90세에도 젊은이 뺨치게 연주하고 노래하는 쿠바의 잊혀진 대중 음악가들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대문호 괴테는 80세가 넘어 대작 파우스트를 썼고 대화가 피카소는 90세를 넘겨서도 작품 활동을 왕성하게 벌였다.

우리사회의 세대교체가 진정 어떤 모습으로 이뤄져야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본격 논의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 **PEEK**